

미국기업의 위험처리비용(상)

위험관리의 목적 중 하나는 위험처리비용 즉, 위험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총액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미국 기업의 위험처리비용 실태를 Tillnghast-Towers Perrin사와 RIMS(Risk and Insurance Management Society)가 매년 공동으로 조사하여 「위험처리비용 조사(Cost of Risk Survey)」라 하여 발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96년의 실태를 리스크 파이낸싱과 위험관리 체제의 개요와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1. 위험처리비용의 개념과 조사 대상

가. 위험처리비용이란 무엇인가?

「위험처리비용」의 개념은 전 RIMS의 회장인 Douglas Barrow씨가 '62년에 제안하였는데, 위험처리비용이란 ①정미보험료, ②보유손실, ③ 위험제어 및 손실방지비용, ④관리비용 등 4가지 비용의 총계로, 위험관리에 드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위험처리비용의 개념은 '93년 매니지먼트 회계 사연구소와 RIMS가 공동으로 간행한 「관리회계서의 표준」에서 정식으로 승인되었다. 이 표준에는 위험처리비용이 재산, 불법행위책임과 직업성 상병의 3가지 잠재위험에 적용되며, 보험료,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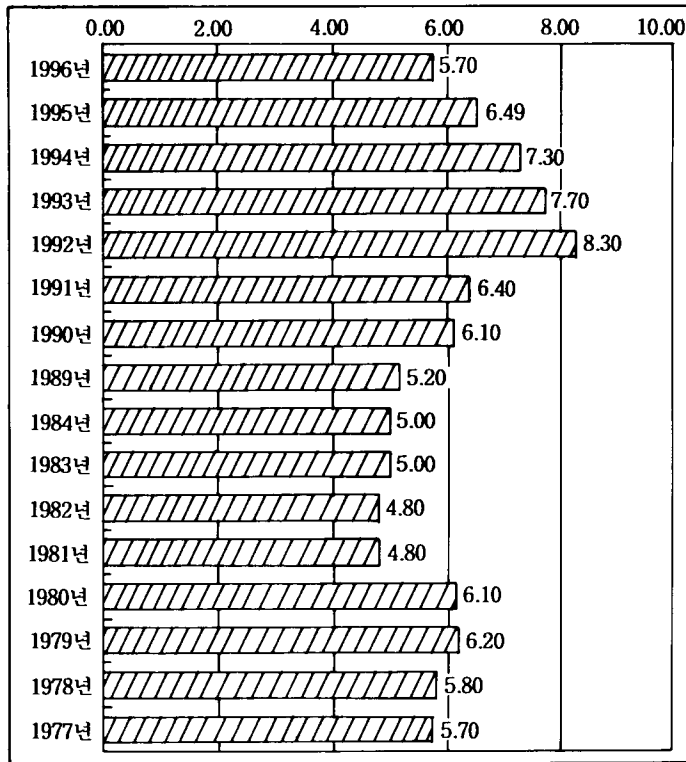
손실, 내부 관리, 외부 서비스, 지불보증 비용, 각종 수수료, 세금 및 유사 비용 지출 등 6종류의 비용이 나타나 있다.

나. 조사에서는 위험제어 비용이 제외

Tillinghast사와 RIMS는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매년 위험처리비용을 조사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 등 위험제어 비용은 제외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의 많은 부문이 위험제어를 하고 있고, 그 비용을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로 하는 곳이 많아서 위험처리비용으로서의 의식이 희박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 변모하는 위험처리비용의 개념

최근 Tillinghast사와 RIMS 사이에 위험처리비용의 개념이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Tillinghast사는 통합위험관리(integrated risk management: 보험 리스크에 한하지 않고 투기 리스크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식)의 영향을 받아 금리 변동리스크나 기업이미지 악화 등의 비용도 위험처리비용 조사 대상으로 하려 한다. 그러나, RIMS는 이전처럼 보험리스크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이로써 17년간 이어온 공동조사가 각사의 독자적인 조사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림 1】 위험처리비용 비율의 변천 (단위: \$)

2. 위험처리비용은 4년 연속 감소

가. 위험처리비용은 매출 1,000\$ 당 5.70\$

'96년의 미국 기업의 위험처리비용은 매출 1,000\$ 당 5.70\$로, '95년도 6.49\$에서 0.79\$ 줄었다.(그림1 참조)

나. 4년 연속 위험처리비용 비율이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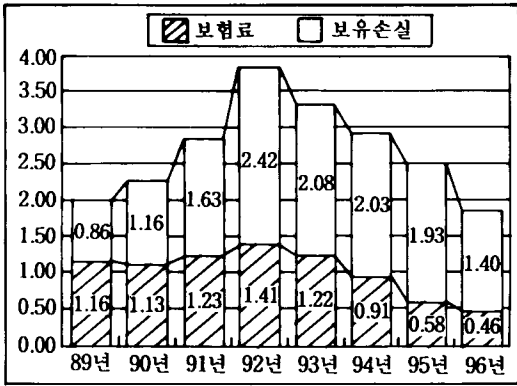
매출 1,000\$ 당 위험처리비용 비율은 그림1 과 같이 '92년의 8.30\$에서 4년 연속 떨어져 '96년은 5.70\$가 되었다. 4년 연속 하락은 77년 조사를 개시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하락의 주 요인은 노동재해(이하 노재) 위험처리비용이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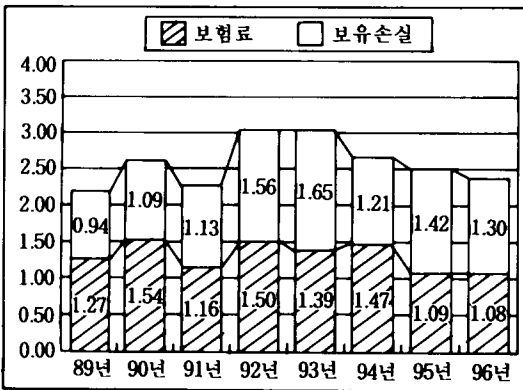
노재 위험처리비용은 그림2-1과 같이 '92년의 3.83\$에서 '96년 1.86\$로 약 51% 개선되었다. 노재 감소액 1.97\$는 전체 위험처리비용의 감소액 2.60\$의 약 76%를 차지하여, 노재 위험처리비용의 감소가 전체 비용 절감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상 위험처리비용도 3년 연속 개선되어 '92년의 3.06\$에서 '96년 2.41\$로 약 21% 감소하였다(그림2-2 참조).

노재와 배상 모두 위험처리비용 감소의 주원인은 보험료 삭감이다. 특히, 노재 보험료는 '92년의 1.41\$에서 '96년 0.46\$로, 금액은 0.95\$, 비율은 약 67%나 크게 감소하고 있다. (그림 2-1 참조)



【그림2-1】 노재리스크보험과 보유손실의 변천 (단위 : \$)



【그림2-2】 배상리스크보험과 보유손실의 변천 (단위 : \$)

배상 보험료는 '93년의 1.39\$에서 '94년에 1.47\$로 증가하였으나, '92년과 '96년을 비교하면 1.50\$에서 1.08\$로 약 28% 감소하여, 노재 리스크와 마찬가지로 감소 경향이다.(그림2-2 참조)

재산리스크는 그림2-3과 같이 '92년의 1.06\$에서 '94년 1.34\$까지 상승하였으나, 96년은 1.12\$로 내렸다. 보험료는 '92년 0.76\$에서 '95년 0.84\$로 상승하였으나, '96년은 0.80\$로 약간 감소. 보유손실은 '92년의 0.30\$에서 증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96년도는 전년과 같았다. 이는 풍수재 등 천재로 인한 손실로 보험구

입이 어려워지면 보험손실을 늘리고, 그 후 구입하기 쉬워지면 보유손실을 줄이는 식으로, 보험시장의 변동을 보유손실의 증감으로 조정한 결과라 생각된다.

다. 위험처리비용 저하의 원인

위험처리비용 조사 결과, 리스크 삭감에 효과가 있었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적, 직접적인 클레임 매니지먼트

- 기업 내부의 조사, 사고 보고의 조속화 및 적극적인 처리로 클레임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
- managed care(피보험자에 대해 의료를 위한 자금 수당과 의료 공급을 통합한 것)나 상병자의 직장 복귀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
- 피재종업원을 조기에 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현장 의료진을 이용하여 본인, 직속 상사 및 의사와의 연대를 강화

(2) 안전성과 손실제어활동에 초점을 둔다

- 일하기 편한 직장환경, 인간공학적으로 설계가 된 기계장치 등을 도입
- 가능한 경우, 피재종업원에게 다른 일을 시켜 직장 복귀를 촉진
- 기계장치를 방어할 자금을 매년 낸다
- 현장에 손실을 제어하는 요원을 배치
- 기계장치 일상점검, 안전위원회 개최와 종업원의 안전훈련

(3) 각 부문에 비용을 할당

부문별 또는 지역별로 비용을 할당, 손실발생의 다과를 책임자 보너스와 연결시킨다.

(4) 매니지먼트 지원

명확한 위험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시하게 되면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5) 면책금액을 높게 하고 보유를 늘렸다

보험시장을 조사하여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갱신할 수 있게 한다.

(6) 브로커나 보험업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

- 적절한 위험 회피와 위험제어를 해 왔음을 강조한 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
- 보험회사를 사내 손해개선에 깊이 관여시켜 보다 낮은 보험료와 평균 이상의 서비스를 획득

라. 노재와 배상 리스크가 대부분을 차지

그림3의 바깥쪽 원그래프는 '96년의 위험처리비용의 리스크별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노재리스크가 34.6%, 배상리스크가 44.4%를 차지, 재산리스크가 18.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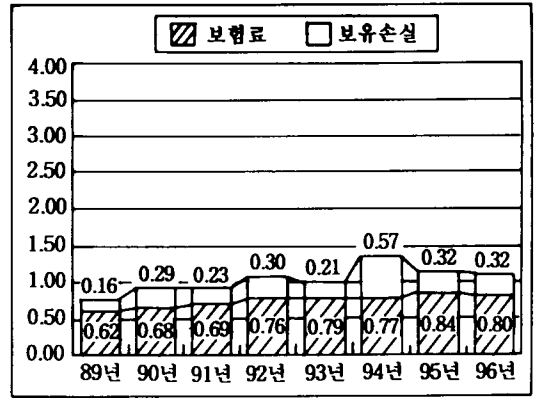
안쪽 원 '92년과 비교하면 노재리스크 비율은 48.2%에서 34.5%로 내려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배상리스크와 재산리스크는 그림2-2, 그림2-3에서 본 바와 같이 '96년에는 개선되었으나, 전체 위험처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8.6%에서 44.4%로, 13.3%에서 21.0%로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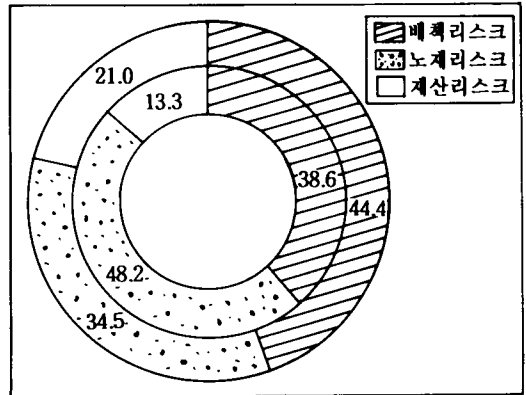
마. 「보험 분리」가 진행

그림4는 위험처리비용의 용도별 내역을 나타내고 있다. 위험처리비용 중 보험료는 41.4%이고, 보유손실은 52.7%를 차지, 나머지 5.9%가 외부 서비스와 위험관리부문의 운영비로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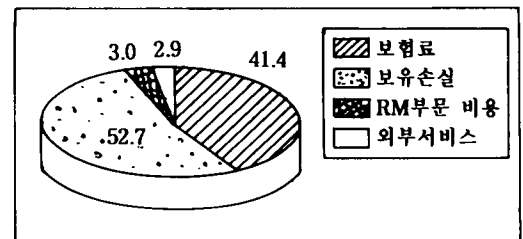
보험의 비율은 '77년 조사 개시 이래 해마다 계속 저하하고 있다. 그림5는 보험과 보유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조사 개시 당시 보험은 76.7%를



【그림 2-3】 재산리스크보험과 보유손실의 변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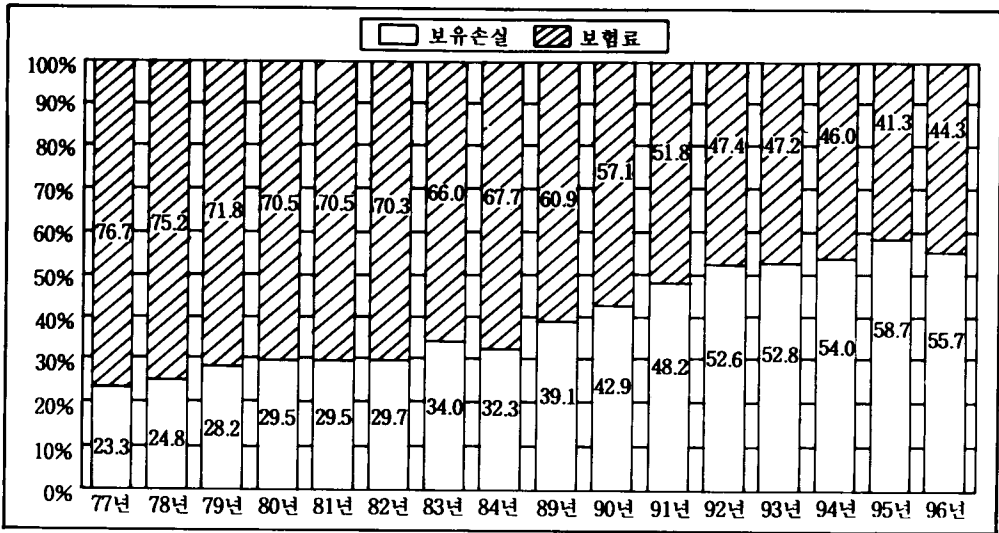


【그림 3】 위험처리비용의 리스크별 내역 (단위 : %)



【그림 4】 위험처리비용의 용도별 내역

차지하고 있었으나, '92년에는 50%를 밀도는 47.4%로, 95년은 41.3%가 되었다. 96년도는



【그림 5】 위험처리비용 내역의 연차변화 (단위: %)

보험료가 2.0% 늘어 44.3%가 되었다.

(제99호에 계속)

다만, 보험료 비율의 증가는 노재 보유손실의 감소가 커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험료 지불액이 증가한 것은 아니다.

이유식 / 위험관리정보센터 과장
 “保險每日新聞”에서 발췌

NFC 한국어판 날권 보급 안내

협회에서는 방재기술의 세계화를 지향하기 위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NFC(National Fire Code : 미국방화협회 발간)를 완역·발간(1995년)하여 실비로 보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구입하지 못하신 많은 고객들을 위하여 이번에 NFPA와의 ‘한국어판 인가 및 배포 협약서’ 재계약을 통해 날권으로도 보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가 격 : 1~10권 150,000/권, 11~20권 100,000/권
- ◆ 할인율 : 특별회원 20%, 단체회원 10%
- ◆ 문 의 : ☎ (02)780-8111(교 353~355)

FAX (02)783-4094